



전 남편 영혼마저 모독한 고유정

제주지법 어제 ‘전 남편 살해사건’ 첫 공판 진행
피고측 피해자 사생활 언급하며 “성폭행 하려해”
검찰 “계획범행 증거 명백… 재판에서 입증할 것”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고씨는 열은 초록빛 반팔 수의를 입고 있었으며, 방청석 쪽으로는 머리를 내려 얼굴을 가렸다. 반면 재판부가 있는 방향으로는 머리를 귀 뒤로 넘겨 판사들과 눈을 맞췄다.

고씨가 법정에 출석하자 방청석에는 “살인마”, “머리를 울려라” 등의 고함소리가 나와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공소사실 낭독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사 내내 기억이 파편화 됐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잘 듣고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도(36)씨에게 졸페미이 섞인 음식물을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해진 강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해당 펜션에서 시신을 1차 훼손 후 5월 28

일 오후 8시54분쯤 제주~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바다로 유기했고, 나머지 시신은 가족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에서 2차 훼손, 30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시신을 아파트 쓰레기 분류시설에 버렸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동생 등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 사이에 낳은 아이가 ‘엄

마는 살인마’라는 편향되고 지극히 왜곡된 오해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일어난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특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과 결혼 당시 있었던 사생활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이 나와 방청객들이 흥분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오늘 공판 기일은 최후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

니”라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범행 전 ‘니코틴 치사량’, ‘수갑’, ‘전기충격기’, ‘여객선 갑판’ 등을 검색한 것은 당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비극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이를 입증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고씨에 대한 2번째 공판기일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고인 명예 훼손”… 유족들 분노 표출

첫 공판 전국적 관심… 사법연수생 등도 참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은 고유정(36)이 분노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붙잡혔다.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재학생도 재판을 참관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고씨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시민 50여명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공장 제

주교도소 호송차량이 주차된 제주지방검찰청 후문에 몰려들었다. 이어 호송차 출입문 앞에 인간 피를 만들어 막았고, 고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한 시민이 머리채를 기습적으로 낚아채 끌어당겼다. 이를 기점으로 시민들이 앞다퉈 고씨에게 돌진하면서 한바탕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교도관들이 추가로 투입돼 성난 시민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고씨가 재판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모독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이를 들은 방청객들은 아우성을 쏘아 냈고, 판사들도 변호인에게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고씨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이고 선을 넘은 주장을 펼쳤다”

고깃집서 손님 17명 일산화탄소 중독

업소 번개탄서 발생 추정

서귀포시 한 고깃집에서 손님 1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

급대에 의해 갑압치료 장비가 있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해군기지 등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와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은 해당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개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제주도 비위공무원 53명

징계율 1000명당 9명꼴
2년 연속 전국 최고수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징계비율이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명당 9명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공무원 사회에서의 청렴성 제고 및 처벌 강화는 물론 자체 자정활동이 요구된다.

12일 통계청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작성한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862명 가운데 53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율은 0.90%에 이른다. 징

계처분은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37명 등이다. 소속별로는 제주도청 42명, 행정시 11명(읍 1·면 1·동 2 포함) 등이다.

이는 전국 행정기관 공무원 31만 654명 중 1857명(0.56%)이 징계를 받은 것보다 비율상 배에 가까운 수치다. 제주 공무원 1000명중 9명이 징계를 받은 셈으로 전국 평균 5.6명보다 월등히 많다는 의미다. 2017년에도 50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1000명당 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으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제주도청 소속 여성공무원은 19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33%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부산 등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12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십수년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들을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계약기간을 1월 2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체결함으로써 연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 되도록 꼼수를 부려왔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꼼수 계약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행위이자 탈법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감전사고 예방 안전진단

제주시는 여름철 감전사고에 의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일까지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시설 안전진단을 완료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안전진단은 455개소 690등의 횡단보도 안전조명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체점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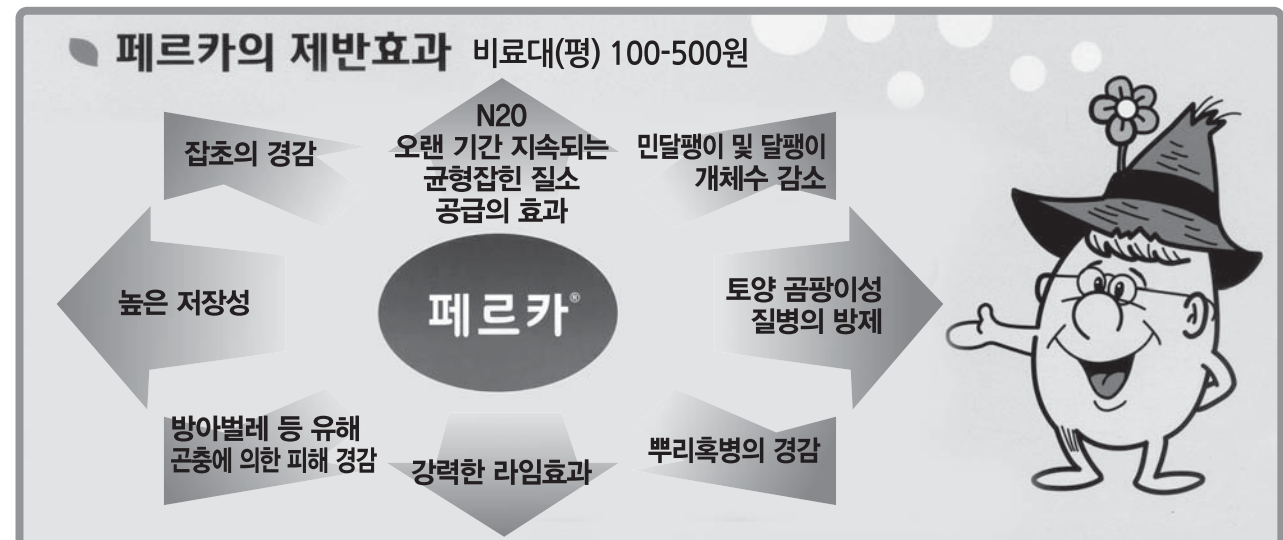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내용은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감전사고 우려 여부, 선로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개소 파악 및 조명등 상태 점검으로 부적합 조명등 시설은 진단과 동시에 보수작업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월동채소농가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콜리
양파·배추
(500㎖당 500배 희석)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 자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 무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 늘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말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